

#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내년 1월 본격 착수

아마 야구장·풋살장·산책로·바닥분수·공연장 등 조성... 지하 1~2층엔 800대분 주차장

옛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되면서 선동열, 김성한, 이종범 등 기라성 같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통쾌한 홈런과 멋진 투구를 선사했던 50년 역사의 광주 무등경기장을 아마추어 야구장과 생활체육 시설로 부활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또 인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발생하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12일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예초 지난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재원 조달계획 미흡, 수익시설 유지방안 등이 지적되면서 진척되지 못했다.

사업비 458억원(국비 37억·시비 421억)을 들여 관람석(9800석)을 철거하고 새 아마추어 야구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야구장을 리모델링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관람석을 철거한 공간과 경기장 주변에는 풋살장, 다목적 체육관, 조깅 트랙, 야외체육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한다. 철거하지 않은 본부석에는 편의시설이



내년 1월 생활체육시설로 리모델링 되는 무등경기장. 오른쪽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광주일보 자료사진)

들어선다. 녹지공간에는 산책로, 보행광장, 바닥분수, 소공연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한 배관, 화장실 등도 대대적으로 정비,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하 1~2층에는 8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새롭게 마련한다. 최대 2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챔피언스필드 주차장 수용 규모는 690대에 불과해 야구

시즌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인근 도로와 주택가까지 점령해 주민 불편이 컸다. 광주시는 무등야구장에 이어 인근 임동 공공주차장에도 8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자리 잡은 무등야구장은 1965년 세워져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해태 타이거즈부터 KIA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쓰였다.

2000년대 들어 낡은 시설과 잦은 부상

발생으로 선수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바로 옆에 챔피언스필드가 건립되면서 2013년 10월 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 경기는 더 열리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50년 된 노후시설을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 환원하고, 고질적인 야구장 주차장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 남북 소득 격차 확대... 1730조 vs 36조

(2017년 국민총소득)

남북 간 소득 차이가 최근 1년 사이에 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공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남한의 1인당 총소득은 3363만6000원, 북한의 1인당 총소득은 146만4000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23.0배에 달했다. 2016년에는 남한의 1인당 총소득이 북한의 22.0배였는데 격차가 더 커졌다. 1인당 총소득은 1990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5.7배 수준이었는데 차이가 확대하는 양상이다.

2017년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이 1730조4614억원으로 북한(36조6310억원)의 47.2배였다. 전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45.3배였는데 역시 격차가 커졌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명목)은 남한이 1569조416억원, 북한 36조3818억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43.1배였다. 2017년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3.5%로 추정됐으며 이는 1997년 -6.5%를 기록한 후 2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었다. 남한은 작년에 성장률 3.1%를 기록해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다.

남북한 주요 통계		2017년 기준 남/북/연	
인구(만명)	5,145	2,501	2
명목 GNI(조원)	1,730	37	47
1인당 GNI(만원)	3,364	146	23
무역총액(억달러)	10,521	56	190
수출	5,737	18	324
수입(역외, 남북교류 포함)	4,785	38	127
조각감산량(만원)	7,103	109	65
시멘트(만톤)	5,740	684	8
발전설비용량(만 kW)	11.7	0.8	15
발전량(만 kWh)	397	219	2
수산물(만톤)	375	88	4
철도총연장(km)	4,078	5,287	1
도로총연장(만 km)	11.0	2.6	4
선박보유량(만 GT)	4,573	101	45

작년 북한의 인구는 2501만명으로 남한(5145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작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 66.3세, 여성 73.1세로 남한보다 남성은 13.2세, 여성은 12.5세 짧았다. /연합뉴스

## "비핵화 아직 본궤도 못 올라"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현상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 고위급 접촉도 있었지만,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르는 상응조치를 주고받기 위한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논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북 정책과 접촉의 최전선에서 뛰면서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을 접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평가다. 실제로 북미는 지난 10월 7일 폼페오 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와 인권 등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간 신뢰가 부족하고 입장차도 큰 상황에서 양쪽이 모두 고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영변 핵시설 검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계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 교착 국면 속에서도 "(북미가) 조금씩은 상대방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 생겨가는 것 같다"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 당국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 기본적으로 양쪽이 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고 몇 개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논의될 가능성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해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나타냈다. /연합뉴스

## 어촌뉴딜300, 부처·지자체 협업체제 구축

내년 지자체 예산에 설계비 반영 사업 조기 집행키로

해양수산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내년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타 부처와 연계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체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행정지원을 총괄할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또 정부부처 간 연계사업의 종합적 패키지 지원을 위해 범부처 심의기구인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어촌뉴딜 지역협업체제'를 통해 주민참여 개발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촌뉴딜자문단'이 사업과정뿐 아니라 사후에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지침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전체 70곳 중 전남은 26곳이 포함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강진 서중항, 고흥 선정항, 여수 죽포항, 영광 송이도항·법성항, 장흥 노력항, 진도 창유항·송군항이 국민휴양형으로 개발된다. 수산·휴양 복합형으로는 고흥 백홍항, 목포 달리도항, 순천 화포항, 신안 하우리항·만재항·생김항, 여수 안도항·월호항, 완도 솔지항·가학항, 함평 함평항 등이 선정됐다.

광양 와우포구와 신안 진리항은 해양레저형으로, 무안 신월항과 보성 상진항은 재생기반형, 보성 동울항과 해남 두모항·구성항은 수산특화형으로 추진된다. 이들 어촌·어항에는 사업대상지별로 앞으로 2년간 50억원에서 143억원 등 총 2312억원이 투입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영암 영암천서 AI 항원 검출

영암군 영암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방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방·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방역 차장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게 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1~2일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강진 만덕간척지와 순천만에서 검출된 AI 항원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

## 정부, 경기 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여의도 절반 크기 만한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택지 조성과 함께 이들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된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에 37곳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5000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투자자 모집 ★**

- 3억원 이상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최하 연15%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단독**

※ 전남, 북지역/지분환영 ※

바로합니다.010-6834-7400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R-019호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지역 정보문화산업 발전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

#### 1. 모집개요

- 임용직위 : 원장
- 채용인원 : 1명
- 임용조건
  - 신분 : 계약직(상근임원)
  -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경영상태에 따라 1년 단위 계속 연임가능)
  - 보수 : 81,076천원 ~ 94,190천원(수당별도)
- 주요직무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총괄
  -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등

#### 2. 자격요건

- 직무 수행요건
  -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기획·경영 및 마케팅 능력 소유자
  - 정보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진흥원의 지립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 지도력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춘 전문인
  -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과 원만한 관계 유지 및 현안 조정능력이 탁월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국제교류 경험이 풍부한 자
- 응모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 결정사유 등)>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방법

-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1차 : 서류전형
  - 평가방법 : 응시자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원장추천위원회 심사
  - 평가항목 : 기본자격, 학력, ICT분야 활동, 관련분야 적합성 등
  - 평가기준 :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점 70점 이상 합격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방법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10분) 및 질의응답 등
  - 평가항목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등
  - 평가기준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선발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1. 14.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 마감일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 수 처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팀 인사담당자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1층

#### 5.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사식 1)
	② 직무수행계획서 1부	(사식 2)
	③ 자기소개서 1부	(사식 3)
	④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사식 4)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제출
	⑥ 경력증명서 1부	경력확인 가능한 연력처 기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⑧ 주민등록 초본 1부	원본제출
	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사본제출
	⑩ 주요 연구실적 목록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지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 외국어로 된 서류는 우리말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함께 제출 ※

#### 6. 기타사항

- 응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모자가 모집인원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등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팀 인사담당자☎061-280-70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